

1 개요

표선면 토산리 윗마을과 아랫마을 사이에 있는 거스샘이와 낙단샘이 관련 전설이다.

2 내용

토산리 윗마을과 아랫마을 사이에 거스샘이와 낙단샘이가 있다. 물이 같은 구멍에서 나오는데, 한 줄기는 한라산 쪽으로 거슬러 흘러서 거스샘이라 하고, 한 줄기는 바다 쪽으로 흘러내려서 낙단샘이라 한다.

옛날 제주도에 날개 돋힌 장수가 났다. 그 소식이 중국에까지 알려지자, 황제가 호종단을 보내 산혈(山穴)과 물혈(水穴)을 뜨라고 했다. 종달리로 들어온 호종단이 명혈(名穴)을 뜨다가 토산리 너븐밭(廣田)에 이르렀다. 그 곳에서 밭을 갈던 농부에게 어떤 고운 처녀가 와서 늦그릇(행기) 물을 떠다가 길마에 잠시 숨겨달라는 청에 응했더니 처녀가 물속에 뛰어들어서 사라졌다. 그 처녀는 낙단샘이와 거스샘이의 수신(水神)이었다.

농부가 이상하게 여기고 있었는데, 명혈을 그린 산록(山麓)을 가진 호종단이 다가와서, 고부랑낭(구부러진 나무) 아래 행기물(늦그릇물)이 어디 있는지 묻는 것이었다. 고부랑낭(구부러진 나무) 아래 행기물(늦그릇물)은 바로 길마에 숨겨놓은 행기물을 뜻하는 것이었다.

농부는 모른다고 잡아땀다. 호종단이 찾다가, 산록에 있는 행기물을 찾지 못하고 서쪽으로 사라졌다. 그래서 종달리에서부터 토산리까지는 호종단이 물혈을 떠 버려서 생수가 솟는 곳이 없지만, 이 거스샘이와 낙단샘이는 살아남은 것이라고 한다.

3 특징

4 핵심어

거스샘이, 거스샘, 낙단샘이, 낙단샘, 황제, 토산리, 호종단, 산혈(山穴), 물혈(水穴), 종달리, 명혈(名穴), 너븐밭(廣田), 농부, 늦그릇(행기), 처녀, 길마, 수신(水神), 행기물

5 원전 서지사항

거스샘이와 낙단샘이(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6 관련 자료